

농·산촌체험마을 활성화 포럼

무주군, 수요 주도형 농·산촌 체험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강연·토론 진행

무주군은 26일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산촌체험마을을 활성화 포럼(주최·무주군·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관·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무주군 체험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23곳의 관계자들과 무주군 농촌관광, 산림소득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컨슈머 인 사이트의 '농촌 체험에 대한 소비자 데이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관광팀 권이현 부장이 진행하는 강연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성공한 체험휴양마을 사

례'와 '휴양마을 방향성 개선 방안' 등이 제시돼 호응을 얻었으며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는 '체험마을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 송금현 부군수는 "이 자리가 체험휴양마을이 농촌관광의 중요 자원이자 농의소득 기반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모쪼록 우리 지역과 마을에 맞는 방안들이 마련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돼 있는 지역 분위기를 살리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산촌 체험휴양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8곳, 산촌생태마을이 12곳 등 총 30곳이다.

'농·산촌 마을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주군은 ▲광역사무장(공모 안내 및 운영, 행정과 마을 간 가교, 관내 체험휴양마을을 아우르는 역할 수행)제도 운영과 ▲가족 등 대상 맞춤형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향토 먹거리 개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휴양마을 운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최일섭 센터장은 "수요 주도형 농·산촌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과 협력해 힐링과 건강, 치유, 생태체험, 음식, 역사유적과 문화자원, 지역 예술이 복합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의 색과 무주 사람의 정서가 가득 담겨 신선하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농·산촌 체험휴양마을로의 변화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 직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6월 10일까지 500여명 참여

장수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농촌일손돕기를 다

시 추진한다.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및 농촌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직원 영농철 일손돕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6월 10일까지 완료로 추진되는 일손돕기는 장수군 소속 500여명의 직원이 사과 사과, 모내기, 고추주목설치, 채소 수따르기, 자두, 배 숙기 및 봉지 씌우기, 마늘수확, 양파수확, 감자, 콩, 옥수수 파종 등 일손돕기를 펼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작업 간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도구, 필요물품, 도시락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기에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농촌일손돕기를 다시 추진한다.

무주군충박물관·최북미술관, 미래 인재들 위한 프로그램 풍성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인 반디랜드 충박물관과 최북미술관이 자랑하는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상상의 날개를 맘껏 펼치게 해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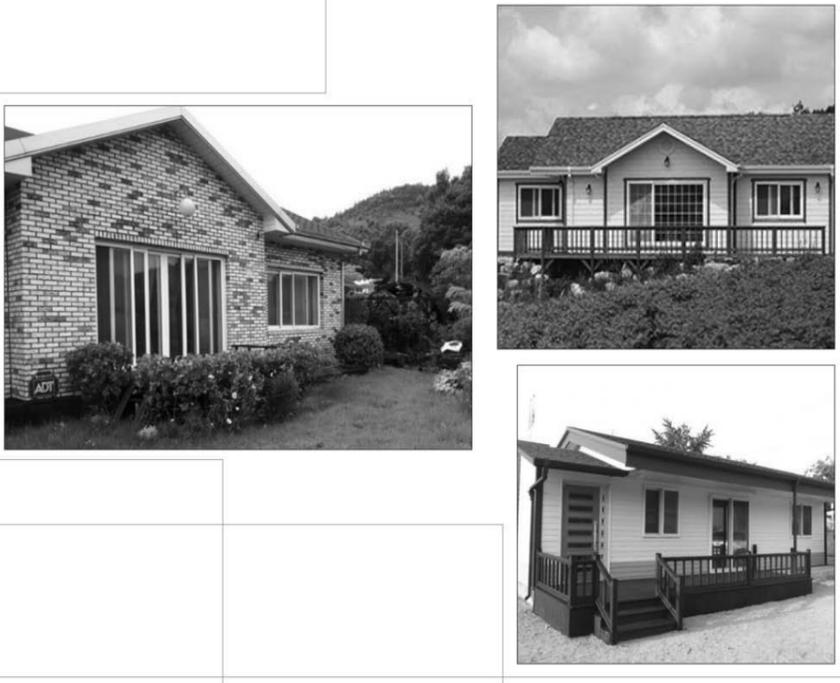
무주 대표적 관광지인 반디랜드 충박물관에는 암모나이트, 삼엽충 외에도 다양한 실물 공룡화석과 공룡화석 복제품 등이 60여종에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시간과 여

유모움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체험공간인 산실로 우뚝 서고 있다.

26일 관내 유치원생 20여명이 다양한 공룡표본과 살아있는 공룡 외에도 과거에 살았던 공룡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무주 반디랜드 충박물관을 찾아 '화석과의 만남'을 통해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즐겁고 흥겨운 한 때를 보냈다.

무주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

고 있는 최북미술관도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가는 날'을 마련했다. 같은 날 무주 과목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사 40여명이 최북미술관을 찾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곳에서는 '공예의 숨결'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관람객들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감상했으며, 원목시계 만들기' 미술체험으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토지 임야 상가 농가주택

부동산의 모든 것

무진장 부동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29
T. 063-433-6842
대표: 김인식
M. 010-2291-8990

진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총력

75세 이상 접종 완료... 60~74세 사전예약률 76.3% 도내 1위

진안군은 26일 코로나19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위탁의료기관에서 5~6월 진행되는 6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이 60~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전체 6,690명 중 5,106명이 예약률 76.3%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예약률 58.7%보다 10% 이상 높고, 도내 14개 시군 평균 예약률 70.7%보다 5% 이상 높은 것으로 군은 고령층의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약은 물론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현장 출장, 이장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군은 진안군의료원, 구세의원, 마이

외과정형외과의원, 송외과의원, 진안의원, 김흥기 가정의학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등 7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면 읍면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접종 대상자들의 원활한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홀로 계시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백신 부작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체 공직자들이 1일 2회 이상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읍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과 함께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 추진

무주군이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노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점 환경을 조성,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다.

올해 진행되는 음식점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어르신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좌식 식탁을 일식으로 교체'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가 핵심이며 ▲주방시설, 도배·장판 등 교체, ▲자동문 설치 등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통해 4개

소의 대상 음식점을 선정, 1개소에 1,000만 원(자부담 300만 원 포함)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업소에도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영령 팀장은 "소비자들에게는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고 영업주에게는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온다"며 "군은 앞으로도 음식문화 환경 개선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모집은 완료됐으며 하반기 6개소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장계농공단지 신규 입주업체 방문

장영수 장수군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계농공단지 입주한 (주)케이오프드에 직접 방문해 격려했다.

(주)케이오프드는 지난해 10월 공장 리모델링을 끝내고 6월 가동을 준비중인 업체로 순대, 당면발 생산하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관내 주민 80~90명의 일자리창출과 연매출 200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망 제조업체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장 군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환경 개선 지원, 근로자 고용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기업운영상 애로



사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입주기업 생산품품 홍보 및 우선구매 방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전춘성 진안군수,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는 26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적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겨내자는 뜻을 담은 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익산시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으며, 후속참여자로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과, 박종각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이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군민여러분께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결혼장려금,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각종 육아 지원 정책,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 등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6일 무주군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6월 8일부터 15일간 실시될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군정 주요 현안과 지역이슈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고 군민 수요를 충족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무주군 주요사업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철저한 집행부 견제 및 건설적 정책 제시를 무주군의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도 신규 동부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무주=전문선 기자